

“저소득·소외계층도 문화공연 즐길 수 있게”

‘문화 바우처’를 아시나요

광주·전남 내달 첫 시행…뮤지컬 등 관람권 지원

광주 올 예산 7,000만원 확보 1,000여명에 혜택

저소득층이 영화나 공연, 미술 전시회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 바우처’(voucher) 사업은 일종의 쿠폰과 같다. 소외계층의 문화 공연 예술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를 뜻 한다.

참여 희망자는 뮤지컬·무용·연극·대중음악공연·미술전시회·영화 등을 선택하면 무료 관람권을 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1인당 연 1회로 3만원 내외다. 신청자 혼자 관람할 경우는 관람료만이 지원되지만,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을 동반할 경우 교통비 등 추가 비용이 지원된다.

사업 첫 해인 올해 광주 예산은 총 7천100만원으로, 1천여명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중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6

월부터 정식으로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희망자들의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월별로 불만한 공연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은 주관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단체는 법인일 경우 참여 희망자 명단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061-381-2235)·‘한국장애인문화협회 전라남도협회’(061-281-5535)·‘(사)남도평화문화재단’(061-751-7500).

/체험증기자 chae@kwangju.co.kr

선거 로고송 무단 사용후보 무더기 제소되나

광주·전남 후보 1,068명중 10%만 저작권료 지불

음악저작권협, 단속반 편성 조사 착수…소송키로

광주시장 후보에 출마한 한 후보는 ‘빙고(거북이)와 월드컵 송’(클론)을 자신의 선거 ‘로고송’(Logo Song)으로 사용하고 있다. ‘빙고’는 행운을 상징하고, ‘월드컵 송’은 다음달 열리는 독일 월드컵을 겨냥한 것이다. ‘쿵파리사바라’(클론)·‘사람은 아무나 하나’(태진아)·‘무조건’(박상철) 등을 ‘로고송’으로 이용하는 입후보자도 많다.

5·31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거리에 ‘로고송’ 소리가 요란하다. 하지만 저작권료 등을 지불하지 않은 후보자는 당선 후 법정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신영균)는 최근 시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포함한 장애인·노인·소년소녀 가정 등이며,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도 해당된다.

월부터 정식으로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희망자들의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월별로 불만한 공연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은 주관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단체는 법인일 경우 참여 희망자 명단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061-381-2235)·‘한국장애인문화협회 전라남도협회’(061-281-5535)·‘(사)남도평화문화재단’(061-751-7500).

개인은 주관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단체는 법인일 경우 참여 희망자 명단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061-381-2235)·‘한국장애인문화협회 전라남도협회’(061-281-5535)·‘(사)남도평화문화재단’(061-751-7500).

/체험증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소장 신종식) 회원 200여명은 23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노인학대 예방 거리 캠페인을 갖고 사회적 관심 제고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기막힌 ‘인면수심’

목사가 장애인 성폭행·감금 등 유린

정신병 치료약 강제투약 6명 숨지게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장애인들에게 장기 복용시 인체에 유해한 약을 먹여 숨지게 하고 성폭행까지 일삼은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목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23일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며 수용자들을 감금하고 정신병 치료약을 수십알씩 장기간 강제적으로 먹여 6명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목사 정모(67)씨를 구속하고 정씨를 도운 수용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92년 목사 안수를 받은 정씨는 2002년 4월 경기도 김포시에 미신과 장애인 시설 ‘000 기도원’을 설립한 뒤 2003년 5월~2005년 11월 임모(여·24)씨 등 자신

에게 반항하는 수용자 6명에게 정신병 치료약을 하루에 30여알씩 갈기는 6개월에 걸쳐 장기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수용자 중 A(42)씨 등 여성 3명을 자신의 방과 차량, 모텔 등지에서 7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일부 입소자의 명의를 유형주점 업자에게 빌려줘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받게 해 주는 대가로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자신에게 반항하는 수용자들은 쇠사슬로 손발을 묶고 목방에 2~3일 동안 감금했으며, 반항할 경우 약을 음료수에 타서 주거나 다른 수용자들에게 손발을 불잡게 하며 강제로 투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대학생 10명중 6명

“5·31선거 투표 참여”

조대신문 ‘정치의식’ 조사

광주지역 대학생 10명 중 4명은 이번 5·31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대신문이 지난 8~11일까지 조선대 재학생 7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생 정치의식 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9%인 315명이 ‘이번 지방선거에 별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전혀 관심없다’고 답한 학생도 2.2%(16명)에 달했다.

반면 ‘매우 관심 있다’는 8.3%(61명), ‘다소 관심 있다’는 32.7%(240명)

명)에 그쳤다.

투표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60.3%가 ‘있다’고 답했다.

투표를 기피하는 이유로는 ‘정치 무관심’이 4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치권 불신’(26.6%), ‘믿음직한 정치인 부재’(24.9%)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기준은 ‘인물 됨됨이 및 도덕성’ 29.8%, ‘행정가로서의 능력’ 27.6%, ‘공약·정책’ 24.9% 등으로 나타났다. 이념적 성향, 학연·지연·혈연, 소속 정당 등은 10% 미만에 불과했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이현청 호남대 총장 취임

이현청(58·사진) 호남대 제9대 총장이 23일 대학 국제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 총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 학습체계, 경영전략 등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호남대도 예외일 수 없다”며 “변화와 위기를 새로운 꿈을 실현하는 도약의 기회로 삼고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대학

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장흥 출신으로 광주·한양대를 나왔

으며, 부산대 교수·한국대학교협의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유네스코 학점교류 및 학력인정총회 세계 의장, 아태지역 고등교육협력기구 의장을 맡고 있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중개씨 전문학원

TV방송 출연 교수진!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수석 학생자 대회 전국 최다 학생자 대회

매월초 매일드 시대, 행정고시학원

전국 1위

순간기열식 전기보일러

한국 청정고시학원

한국 청정고시학원

한국 청정고시학원

전국은 바다와 산에 뛰어난다!

한국 청정고시학원

한국 청정고시학원

한국 청정고시학원

한국 청정고시학원

한국 청정고시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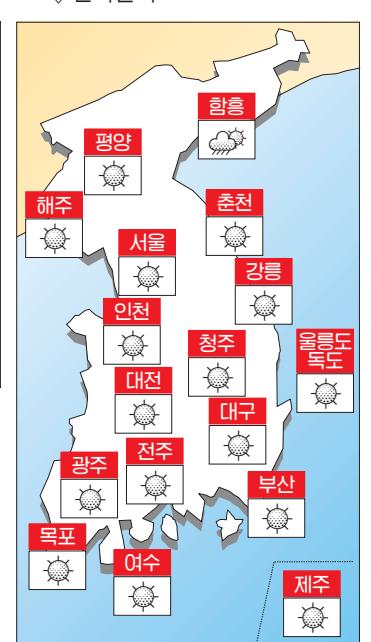
한국 청정고시학원

2006년 5월 24일 수요일 광주일보

2006년 5월 24일 수요일 광주일보

바빠진 손부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다.

5월 24일
(음 4월 27일)
◇전국날씨



날짜	25(목)	26(금)	27(토)	28(일)	29(월)	30(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15/27	17/21	16/23	15/25	13/27	13/27

광주지역 대학생 10명중 6명

“5·31선거 투표 참여”

조대신문 ‘정치의식’ 조사

광주지역 대학생 10명 중 4명은 이번 5·31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대신문이 지난 8~11일까지 조선대 재학생 7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생 정치의식 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9%인 315명이 ‘이번 지방선거에 별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전혀 관심없다’고 답한 학생도 2.2%(16명)에 달했다.

반면 ‘매우 관심 있다’는 8.3%(61명), ‘다소 관심 있다’는 32.7%(240명)

명)에 그쳤다.

투표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60.3%가 ‘있다’고 답했다.

투표를 기피하는 이유로는 ‘정치 무관심’이 4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치권 불신’(26.6%), ‘믿음직한 정치인 부재’(24.9%)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기준은 ‘인물 됨됨이 및 도덕성’ 29.8%, ‘행정가로서의 능력’ 27.6%, ‘공약·정책’ 24.9% 등으로 나타났다. 이념적 성향, 학연·지연·혈연, 소속 정당 등은 10% 미만에 불과했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